

사자-어린양

5/11 월

계 1:1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계 5:2-5

2 또 내가 보니,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3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크게 울었습니다.
5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창 49:8-10

8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니 너의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며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을 할 것이다.
9 유다는 젊은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먹잇감의 일부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는 엎드리고 누운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건드리랴?

10 왕의 지휘봉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이며 백성들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시 110:1-3

1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2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휘봉을 보내시리니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
3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5/12 화

계 5:6-7

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7 그 어린양께서 나아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히 1:3

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 10:12-13

12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들에 대한 하나의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영원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13 그 후로 그분은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받침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 1:29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벧전 1:18-19

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계 12:10-11

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5/13 수**신 33:17**

17 그는 처음 난 소처럼 위엄이 있고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같습니다. 그는 그 뿔로 백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수만 명이 그러하고 므낫세의 수천 명이 그러합니다.”

계 3:1

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계 5:6

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계 1:13-14

13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고,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시 139:1-4, 23-24

1 오, 여호와님! 주님께서 저를 살펴보셨으니 저를 알고 계십니다.

2 주님은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제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3 주님은 저의 길과 제가 눕는 것을 살살이 살피시며 제 모든 길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4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오, 여호와님! 주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까닭입니다.

23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24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렐 17:9-10

9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치유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랴?

10 나 여호와와는 마음을 살피고 속부분을 시험하며 각 사람의 길과 그 행실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5/14 목**속 3:9**

9 여기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겠다. 만군의 여호와와 선포이다.

속 4:10

10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이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추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일곱이 기뻐하리니, 이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와 눈이다.”

벤전 2:4-7

4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6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7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엢 2:20-22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계 21:10-11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5/15 금**계 1:4**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계 4:5

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계 1:12-18

12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13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고,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15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제련된 빛나는 놋쇠와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16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17 그분을 뵈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18 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계 3:1

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5/16 토**계 5:3-14**

3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크게 울었습니다.

5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뿜 수 있습니다.”

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7 그 어린양께서 나아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8 어린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는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10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11 또 나는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12 그들은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풍성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13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이라고 하였으며,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5/17 주일**히 2:6-15**

6 어떤 사람이 성경 어딘가에서 엄숙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7 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8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9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12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13 또 “나는 그분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또 “보십시오,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15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노예 상태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Hymn: 1092

Further Reading: *The Conclusion of the New Testament*, msg. 416

Churchwide Truth Pursuit of Genesis

Level 1—Sequential Life—study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Gen. 50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Genesis*, msg(s). 119–120

Level 2—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Death and Burial of Believers

Crucial Point: Genesis in Revelation

Scripture: N/A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Genesis*, msg(s). 77, 108

Supplemental Reading: *God’s New Testament Economy*, ch. 29; *The Glorious Church*, chs. 4–5; *The Divine Economy*, chs. 14–15, 28; *The Central Thought of God*, ch. 12; *The Tree of Life*, ch. 16

Study Questions: See the church website at churchinnyc.org/bible-study